

# 45. 此學議

(북학의)

이 책은 선하라(先學者)인 박제가(朴齊家)  
의 저작인데 19년에 10권 조선금릉포항  
에 함회에서 출간했다

당시의 도학파(道學派)들이 명(明)나라  
를 숭배하는 데의 명분론자들인 데에 설  
하자는 청(淸)나라를 배척야 한다는 북학론  
자들이다. 편자가 현실을 되보고 관념

론으로 시종 황제 후자는 현신등 적시

하곤 사회를 개량 하자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실학파는 남인(南人) 출신의

양반인데 적어든 영정조(英正祖) 때에는

근학파들의 수가 적어 실학파들을 당해

내려 못하였던 이 당시의 실학파의 거

두로는 연암(燕巖) 박리원(朴<sup>趾</sup>訥源)과

다산(茶山) 정약통(丁若僖), 홍대용(洪大容)

및 홍양호(洪良浩) 등이다. 신정준(申景濬)

등 제제 다사 하였지만 때문이다

북학의(北學議)는 내용에 있어 교통론을  
 기초로 하는 여종익 상임정제론이 된 한 수  
 있다 특히 10편에 달하는 교통에 관한  
 논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반재가(朴在家)는 말하기를 「상업이 번  
 라 하려면 교통이 발달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통이 발달 하려면 용차(用車)  
 와 용선(用船)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그는 「우려스러운 동서가 천리  
 이고 백북(百步)은 그 3배이다 그<sup>가</sup>가 문에 수

두가 있기 때 문에 사방 (四方) 에 서 모여  
 드는 물건이 운반거리 는 500 리에 불과  
 하고 세를 걷는 1,000 리에 지나지 않는  
 데 또한 산맥이 바르 른 들리 쌓여 있  
 으니 바다에 가까-운 곳은 각기 배를 통  
 해 하고 육지에 서 통상 하는 자는 자라 권  
 에 서쪽까지는 먼이 든 5-6 인 정 (程) 에 불  
 라 하는 것이 고 가까 우면 2-3 인 정 (程) 에  
 걸리 지 않을 것이 르 한쪽 기 서 리쪽 끝  
 까지 간다면 낼라 는 몫이 걸릴 것이 르

No.

만일 같은 자를 같은 자를 가지게  
 배치 한다면 사방(四方)의 모든 물가  
 의 불교 빛은 것은 메찬안과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메산골에서  
 는 산사(山刹)를 많아서 그 산맛음에  
 주 대응으로 쓰는 자가 있으며, 또 새  
 무 것이나 조계정을 본교로 이상한 불  
 전이도 있다. 그 가난함이 이와 같으니  
 이 여러 된 일인가. — — — \*  
 그것은 수레(車)가 없는 까닭이라고

대한 함 수 있다 그리고 먹고 있고  
 또한 박제가 (朴齊家)는 일본의 도쿠  
 가와 (徳川家康)는 「...물건 쓰기 등 제한 없이  
 해서 손수 많이 많이 상한 이 것은 어  
 느 사 람의 함안 이 아니다... 그러는 말까지  
 소개 하고 있다  
 박제가는 남 회에 걸쳐 중국의 신양 (潘  
 陽)과 북경 등을 여행 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 대한 이야기 등을 이 책에 수  
 록 하고 있다

No.